

1만학우 하나되어

진보지성 공동체 만듭시다.

어느 단풍든 낙엽이 떨어지 학교를 뒤덮고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항상 학생회 선거가 시작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그때가 찾아왔고 저희들은 경희1만 학우들과 함께 21세기 경희의 모습을 고민하고 만들어 가기 위해 출마하였습니다. 출마하면서 학우들의 학생회 선거에 대해 혹여나 무관심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정치에서 화장을 찾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는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면서 사회가 혼란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정치나 경제에 관심을 가지기 보다는 박찬호나 월드컵 축구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경희 학원의 학우들의 모습을 보면서 학부제로 인해 97학번 친구들은 지나치게 단위의 공동체 생활보다는 개인적인 생각과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신입생 시절 선배·동기들과 거의 매일 술을 마시며 이야기하고 그 속에서 파에 대한 자부심과 동기·선배들에 대한 사랑이 피어났습니다. 지금 경희 1만 학우들의 마음이 떨어지는 낙엽처럼 삭막해 지지는 않았는지... 하지만 마지막 잎새처럼 남은 마지막 양심과 사랑이 있기에 1만 학우가 하나 될 수 있



기호 1번

정 김보섭 (토목4)

다고 믿습니다. 경희 1만 학우가 하나되는 모습! 생각만 해도 절로 흐뭇한 웃음이 나옵니다. 복날이 다가오고 황궁영 학우들에서의 많은 학우들의 관심과 참여가 그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친구를 돕는 마음, 같은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 이제는 각박하고 매마른 겉껍질을 벗어버릴 때입니다.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우리 민족과 우리 경희를 생각해 봅시다. 21세기 민족의 진로를 생각하고 경희의 나아갈 방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몇몇 학생회 간부들이나 학교에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희 1만 학우가 주인이 되어서 풀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98년 김보섭 한원성은 학우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



부 한원성 (임학3)

고, 함께 해결하고자 합니다.

◇ 공약 ◇

—학생운동—
△ '한총련재건과 학생운동권' 신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활동강화 △폭력투쟁 근절
—경희의 얼굴찾기 1—
△교양강의동원 완성 △우정원 완공 △교문전설 △정기적인 경희 TOEIC경시대회 실시 △동문회와 사업강화 △홍보·이미지 사업강화 △학술제를 통한 연구강화
—경희의 얼굴찾기 2—
△2공학관 건설 △제2·3경희의료원, 스포츠센터 건설 △문화감시위원회 건설 △영동문화 △지적영소운동 △언어교 육원내의 시민강화 △풍물교실 등 사업추진
—학부제—

수원캠퍼스 30대 총학생회 지상유세

수원캠퍼스 98학년도 30대 총학생회 선거가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치뤄진다. 현재 총학생회 후보자는 기호 1번 정 김보섭(토목4) 부 한원성(임학3) 군과 기호2번 정 홍전일(건축3) 부 윤용관(화학3)군이다. 이에 우리 신문사에서는 두 후보자의 출마의 변과 질의응답의 기회를 마련했다. <편집자>

△학부학생회 건설 △학내학생회 건설 △전공교양의 학부별 수강 △에비수강신청제도 보완 △비·인기전공에 대한 충분한 투자 △편입생 학내참여 강화

—대학문화—
△대학문화거리 조성 △경희·영동한마당
—교동문제—
△스쿨버스 버스카드 사용 △스쿨버스가 실명제 △배차시간 제시관설치 △승차장 시설개선 △1116번 버스 유치 △'경희대역' 지하철유치 △주말 스쿨버스 운행 △신갈버스 연장운행

—학내복지—
△총학생회, 체육기재실 운영 △전학국센터 설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여학교 육강화

—도서관—
△도서관 로비 효율화 △도서관 생활문화운동 △도서관 휴게실의 문화공간화

2

002년 월드컵 한·일 공동개최, 박찬호 메이저리그 14승, 97년 프랑스월드컵 본선진출 확정. 이런 뉴스가 요즘 우리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2학기 개강을 맞이하며 너무도 슬픈 사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 기억속에 사라져가고 있는 다름아닌 한총련 사건입니다. 학내에서 구타로 인한 사망이 있었고, 이것이 촉매가 되어 과격한 시위가 발생, 학생과 전경이 숨지는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숨어 죽어가는 복덕동 포를 들고자 피를 도하며 외치던 그들이 어찌하여 같은 민족의 가슴에 주먹을 들이대고 발길질을 가해 죽음까지 몰고가는 그런 실수를 했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어느 누구의 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이것은 누구도 용납할 수 없는 인륜을 저버리는 폭력입니다. 이러한 폭력이 우리의 성역(城役)인 학내에

학생회 다운 학생회 건설

경희발전 초석



기호 2번

정 홍전일 (건축3)

서 자행되었다는 것은 너무도 슬픈 일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야만적 폭력성이 우리의 신성한 학내에서 자행되는 것을 더이상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폭력'은 그것이 어떠한 형태로 표출되었건 간에 강령적 저지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교는 해당 안되는 결"이라고 말하실 지 모르지만, 우리를 포함한 한총련가임대학의 진폭적인 지지가 결국 다른 학교에서의 폭력 상태로 나타날 것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한총련 고수는 매우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즉각적인 한총련 탈퇴를 강력히 지지하며, 올 11월 말 경희전 구성원이 참여하는 총학생투표를 실시하여 우리의 이 강력한 의지를 즉각적으로 실천



부 윤용관 (화학3)

할 계획입니다. 비록 출사표라는 작은 지면이지만, 저희는 진정으로 학생회다운 학생회를 만들겠다는 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학생들을 위해 봉사하는 학생회로 가는 큰 걸음을 더이상 머뭇거리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학생회는 학생다운 학생회이기 보다는 학업은 뒷전이고 오직 사업이라는 명분만을 위해 존재하였습니 다. 학생회 간부 또한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학생들입니다. 저희는 모든 것을 희생하는 학생회를 만들지는 않겠습니다. 저희는 단지 최선을 다해 봉사하기 위한 학생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학생다운 모습으로 여러분의 곁에서 봉사하며 같이 발전해 나가는 학생회로 자리잡고 싶습니다.

- ◇ 공약 ◇
1. 학생회의 투명성 확보
△학생자치회비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의 철저한 공개 △간부공개모집 △학생회 시설개방 △함께하는 학생회건설
 2. 대학문화
△대학내 문화교류 확대 △즐거움 축제 △영동문화제 시행 △학문중심의 대학문화 △정기적인 초청강연회 실시 △교내 결혼식 유치
 3. 학생우선의 학내행정
△신선정학점에 따른 차등등록금 납부제 △등록금분할납부제 △강학금 인상 △자조료열람실 개방
 4. 공간문제·건설문제
△노조극장 건설 △외대뒤 소운동장 건설 △강의실 첨단화 △버스터류장 화장실설치 △자유게시판 설치
 5. 서비스중심의 학교행정
△학교행정의 불친절 사례접수 △교직원명찰패용 △스쿨버스 실명제 △의환은행 CD기 증설 △우체국설치 △문구점 취급 품목 확대 △각 학생회실 LAN망설치
 6. 편리한 학교생활
△스쿨버스 버스카드제 도입 △단대별 도서관대체설치 △경희대역 지하철유치 △캠페르내 공공전화증설 △시터폰기증 증설

후보자 질의 응답

-97년 총학생회 대해 간단한 평가를 한다면

기호1번- '사랑과 믿음' 29대 총학생회에 대한 평가에서 사랑과 믿음의 정신으로 대학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학부제시대를 맞이하여 선·후배와 동기간에 정감있는 학생회·과와 학부를 소중히 여기는 학생회를 건설하고자 했습니다.

전반적인 약평을 해 보면 학우들과 함께하는 학생회사업을, 학우들이 공감하는 학생회 사업을 벌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전체학우들이 참여하고 학수받는 대중사업을 통해서 학생회를 대우하려고 노력했던 97년이었습니다.

큰 폭의 넓은 학생회를 통해서 1만학우들이 참여하는 학생회로 발전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학우들의 다종다양한 이해를 구현할 수 있는 학생회체제를 만들고 실현하는 98년 학생회가 되어야 합니다.

대학의 공동체를 학부학생회, 과학생회를 내용있게 강화하는 98년 학생회가 되겠습니다.

다. 경희발전을 학교, 교수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구현하는 98년 학생회가 되겠습니다.

기호2번-97년 총학생회는 전반적으로 기존의 학생회가 담보했던 침묵의 1년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여느때보다 더욱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1년의 사업중에 의지를 갖고 실천한 공약이 과연 몇 개나 되는가 묻고 싶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한마디로 과연 총학생회가 1년동안 뭘 했는가?라고 묻고 싶습니다. 공사가 완료된 부분은 이미 학교당국의 대학평가가 맞춘 계획대로 실천한 것일뿐 총학생회의 의지로 조기완공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축제때는 어떠했습니까? 학우들의 원하는 축제는 이런 축제가 아니었습니다. 대학총회라는 면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정책방향을 잡고 출범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 그 공약들은 한마디로 공약으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올해 제5기 한총련출범식 이

후 한총련이 이적단체로 규정되면서 밖으로는 대대적인 탄압이 나타나고 있고 내적으로는 한총련 탈퇴에 대한 고민과 학생운동의 새로운 방향성 찾기로 많은 논의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 시점에서 이제 한총련을 어떻게 규정지어야 하며 학생운동의 방향은 어떠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기호1번-한총련은 학우들의 대대적으로 이야기하듯이 학생운동을 대표하는 단체입니다. 학생운동이 가지고 있는 정당성은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코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96년과 97년이 지나면서 학생운동은 국민과 학우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한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현실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98년에는 학생운동이 지지받고 학수받는 시대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김보섭 한원성 선거운동본부는 결여한 반성과 용기있는 혁신을 이루어내겠습니다. 국민들에게 지지박수받는 운동을

벌이겠습니다. 지역가꾸기 청소년운동, 일상적인 주민나기기를 벌여나갈 것입니다. 학우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환경, 여성 등의 다양한 운동을 벌이겠습니다. 정치투쟁일변도에서 여성문제, 환경문제를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해결하는 다양한 운동을 벌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북한을 민족으로 바라보고 벌이는 통일운동을 벌여나갈 것입니다. 통일운동을 민족으로 바라보고 민족의 바로알고 인식하는 경희학우들과의 한달의 한 번씩의 초청강연회, 다양한 전진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한총련의 비민주성을 극복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벌이는 것입니다. 한총련간부를 공개적으로 재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하는 한총련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의사수렴기구와 다양한 공청회를 통해서 1년사업계획, 출범식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모아나갔습니다.

기호2번-우리는 한총련을 외부와 마찬가지로 이적단체로

규정하는데 동의합니다. 통일을 향한 염원은 물론 요욕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도덕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일들이 자행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한총련 지도부의 사상검증 문제입니다. 한총련 지도부 때문에 한총련 자체가 이적으로 몰리는 감도 없지 않지만, 한총련의 명령체제가 발달방식인 점에 미루어 보아 어쩔 수 없이 한총련은 이적단체로 규정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학생운동의 움직임을 대두되고 있는 지금, 새로운 학생들의 협체들이 곳곳에 생겨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협체들 역시 통일이라는 역사적 과제는 망각하고 있는 것이지만,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적 풍토 조성 그리고 신대 학문화 건설이라는 측면에 혼신을 기울이고 있는 우리도 이러한 방향성에 대해 적극 동참합니다. 앞으로는 당분간은 새로이 출현하는 학생운동의 신조류들이 이러한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이미 정책자료집에 새로운 학생들의 협체들을 제안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안일 뿐,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의 발현은 아닙니다. 협체들의 구성을 확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협체들을 구성한다고 가정할 때 그 범주는 수원지역 대학들의 형태로서는 매우 작은 협의체가 될 것입니다.

-학교교인 영동지역개발에 따라 학교와 지역간 긴밀한 연계성에 대한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교 이미지 상승, 궁극적인 사회발전에서 그 중요성을 찾을 수 있는 지역, 대학연계에 대한 의견과 구체적인 영동지역, 경희대학간의 교류방안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기호1번-98년은 경희대 수원캠퍼스 주변에 대변화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영동지구 건설되고 경희대주변의 지형이 새롭게 바뀌는 순간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경희대를 지역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를 많은 학우들이 의문시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21

세기에 경희대가 그려나갈 것은 지역에서 인정받고 지지받는 대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경희대가 영동지구를 주도하는 대학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사업을 폭넓게 실현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역주민과의 유대를 강화하면서 경희대의 위치를 확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다종다양한 시민강좌와 풍물교실 등의 교실 운영을 통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인정받는 대학으로의 상을 굳히는 것입니다. 영동문화제를 개최하면서 대학의 건전하고 건강한 문화를 전파하고 지역의 문화를 만드는 중심지의 역할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지역을 가꾸고 사랑하는 대학인으로 지역청소운동을 꾸준히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수도권과의 산학협동을 통해서 연구하는 경희대의 상을 높여줍니다. 공대를 중심으로 내실있는 산학협력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산학협력을 실현하면서 대학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역할, 지역사회에서 대학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서로 공존하면서 상호작용을 하는 지

역대학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제2, 3 경희의료원이나 스포츠센터를 건설하여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사업을 폭넓게 실현하겠습니다.

기호2번-영동지역의 개발에 따른 경희대의 위치는 지역 문화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문화의 중심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사회 현안이 해결되는 리더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일례로 문화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대중매체 경희영동 문화제를 실시하고, 인근의 초·중·고등학교의 학생들이 건전하고 역량있는 대학 문화의 진수를 느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 문제의 선도적인 역할로 지역 사회에서 학교의 이미지를 상승시킬 수 있으리라 봅니다. 경희대간의 교류는 가을 체육대회에서 하루를 상호 방문의 형식(각 캠퍼스의 최종 우등생간의 결승)으로 교류를 증진하고 특성학과-건국공과학과, 산업디자인학과, 도예과, 의상학과...의 졸업작품전을 상호 전시해 서로간의 교류를 확대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취재부>

교 수 초 빙

본 대학교는 1998학년도 1학기 전임교원, 학기제교원, 외국인 강사를 다음과 같이 초빙합니다.

1. 초빙분야

구분	대 학	학부 및 학과	모 집 전 공
서울 캠퍼스	문 리 과 대 학	영 어 학 부	실용영어(내국인 또는 외국인)
		이 학 부 (수학전공)	해석학
		이 학 부 (생물학전공)	동물생리학 및 실험
		지 리 학 과	자연지리학
정 경 대 학	정 경 대 학	법 학 과	조세법
		인문정보학부	광고학(광고론, 소비자행동론, 광고사회학, 광고매체기획 강의의 가능성)
		경 영 학 부 (경영학전공)	광고정보시스템(MIS, 데이터통신, 시스템설계 및 분석 등의 강의의 가능성)
		경제통상학부 (무역학전공)	무역상무론
수 원 캠퍼스	의 과 대 학	의 학 과	생리학(신경생리학), 미생물학(의학분자생물학)
		한 의 과 대 학	한방내과(간계), 한방소아과, 한방방진과, 한방안이비인후과, 한방신경정신과
		약 학 대 학	한 의 학 과
		외 국 어 대 학	러시아어학과
사 회 과 대 학	사 회 과 대 학	경 영 학 부 (경영학전공)	마케팅, 회계
		자 연 과 대 학	자연과학부
		산 업 대 학	생명자원학부 (조경학전공)
			단지계획, 조경생태학

2. 학기제 교원(비전임 교원)

구분	대 학	학부 및 학과	모 집 전 공
서울 캠퍼스	문 리 과 대 학	국 어 국 문 학 과	국어학, 고전문학
		영 어 학 부	영어회화(Native Speaker)
		경 제 통 상 학 부 (무역학전공)	무역학
		국 제 교 육 원	한국어(국어학 전공자를 위한 외국인 교육용 대학교육기관에서 2년이상 강의의 유경험자)

3) 외국인 강사(비전임 교원)

구분	대 학	학부 및 학과	모 집 전 공
서울 캠퍼스	국 제 교 육 원		영어회화(Native Speaker), 영작문

4. 제출서류

가. 해당 전공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접수 마감일 기준)로서 교수임용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나. 한국어, 영어회화(Native Speaker), 영작문 지원자는 석사학위 소지자도 가능함.

가. 국문이력서(반영할관 사건기록, 전공분야, 전파연력서 등) 1부 나. 졸업 및 성적증명서(학사, 석사, 박사) 2부 다. 최종학력증서본 1부 라. 경력 및 재직경력서(해당자에 한함) 1부 마. 추천서(최종학력증서본 지도교수) 1부 바. 연구실적 목록(논문, 연구, 발표논문 및 학술지, 논문개요 순으로 기재) 1부 사. '94. 3월 이후 발표된 연구실적 200% 이상 및 학위논문 2부 아. 2년간 연구계획서 1부

5. 제출기한 및 제출처

가. 제출기한: 1997년 11월 21일(금) 12:00(토, 일요일은 접수 안함) 나. 제 출 처: 1) 해당 캠퍼스 교무부 2) 영학부, 국제교육원 지원자는 국제교육원으로 제출바람.

가. 심사결과와 면접담당자에 한하여 개별통지 함. 나. 전임교원 채용자는 본교 신입교수 임용규정에 의거 연봉제교원으로 임용함. 다. 학기제교원은 본교와의 계약에 의거 임용함. [1년단위로 계약하며 8개월 근무(강의기간) 조건으로 계약함] 라. 해당분야 재직자가 없을 경우 초빙하지 않을 수도 있음. 마. 외국출생은 번역문을 첨부함. 바. 우편접수는 기한 내에 도착한 것만 접수함.

*겸임교원 초빙

본교의 외국어대, 사회과학대, 자연과학대, 공과대학, 체육과학대학에서는 해당영역이 풍부한 산업계 및 연구소의 임원들을 겸임교원으로 초빙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은 수원캠퍼스 교무과(0331-280-201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yunghee.ac.kr을 참고 바람.

◆서울캠퍼스: (우 130-701)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TEL: 교무과: (02)961-0051~2, 국제교육원: 961-0081~2

◆수원캠퍼스: (우 449-701) 경기 용인시 기흥읍 서천리 1번지 TEL: (0331)280-2011~2

1998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전형

1. 전형유형:
 - ◆표형자·박은사회 선행자 전형
 - ◆소년·소년가장 전형
 - ◆국회후진 전형
 - ◆학고장추진 전형
 - ◆독립유공자 직계 손·자녀 및 국가유공자 자녀 전형
 - ◆자기소개서 전형
2. 전형일정:
 - ◆원서교부일: 1997. 11. 10~13
 - ◆원서접수일: 1997. 11. 11~13
 - ◆필답고사 및 면접고사일: 1997. 11. 21
 - ◆합격자 발표일: 1997. 12. 2
3. 지원자격:
 - ◆표형자·박은사회 선행자 전형
 - 보건복지부 주최 표형명상, 국무총리상,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자
 - 「박은사회국제클럽」 국제본부 또는 한국본부 총재상 수상자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수상하는 표형명상 수상자
 - ◆소년·소년가장 전형
 - 소년·소년가장(세대인 포함)으로서 생활보조대상자
 - ◆국회후진자 전형
 - 최근 2년 이내의 공식적인 성적으로 TOEIC 760점이상이거나 TOEFL 520점 이상인 자
 - ◆학고장추진자 전형
 - 고교재학중 지역기관장(교수·구청장·경찰서장) 이상 또는 교육기관장(교육감·교육장) 이상의 장이 수여하는 표형, 선행, 봉사관련분야 수상자로서 출신고등학교의 추천을 받은 자
 - ◆독립유공자 직계 손·자녀 및 국가유공자 자녀 전형
 - 국가보훈처에서 지정한 독립유공자 직계 손·자녀 또는 국가유공자 자녀로서 소득세종합납입 6등급~12등급에 해당되는 자
 - ◆자기소개서 전형
 - 국가도대회, 국내3대 방송사(KBS, MBC, SBS 본사) 또는 전국주요신문(전국지) 주최 각종대회에서 사회활동업적, 전문분야업적 3회 이내로 입상한 자
 -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국가로부터 한국문화유산과 사학, 도예분야의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자
 - 본인이 지닌 학부과 관련된 국가공인자격증 3급이상 보유자로서 유관기관 근무 5년 이상 경력자(전지, 전산, 전파, 항공, 건축, 토목에 한함)
4. 전형방법:
 - ◆표형자·박은사회 선행자 전형: 학생부(20%), 논술(20%), 면접(10%), 표형·선행등급(50%)
 - ◆소년·소년가장 전형: 학생부(40%), 논술(50%), 면접(10%)
 - ◆국 제 화 후 진 전 진: TOEIC 또는 TOEFL(70%), 논술(20%), 면접(10%)
 - ◆학 고 장 추 진 전 진: 학생부(50%), 논술(20%), 면접(30%)
 - ◆독립유공자 직계 손·자녀 및 국가유공자 자녀 전형: 학생부(20%), 논술(20%), 면접(10%), 유공등급(50%)
 - ◆자 기 소 개 서 전 진: 학생부(30%), 논술(20%), 면접(50%)

*필고지연 제학상 선행한 내용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교 입학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캠퍼스: (02)961-0028~9 ◆수원캠퍼스: (0331)280-2140~1

